오通 배움
오通 행복

사하구평생교육신문

사하배움마당

제21호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구

발 행 사하구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 화 220-4801~6 팩 스 220-4809 발행일 2019. 10. 20.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일상의 배움, 일렁이는 학습 물결~

배움을 즐기고 실천하는 평생학습 대잔치

가을을 맞아 부산 평생교육을 한눈에 보고 즐길 평생학습 대잔치가 잇따라 펼쳐진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회 부산평생학습주간'과 사하구가 주최하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이다.

먼저 10월 25일과 26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제2회 부산평생학습주간' 행사가 열린다. '일상의 배움, 일렁이는 학습물결~'이란 주제의 이 행사는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현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이다. 평생학습축제 관련 행사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여 부산의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그려본다.

주요 행사로 우수 평생교육기관과 동아리 활동자에 대한 시상과 세미나, 토론회를 한다.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과 문해교육기관 학습자 대상의 청춘골든벨, 평생교육 홍보·체험관, 평생학습결과물 전시를 한다. 25일 밤에는 평생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는 '평생교육의 밤' 행사를 열어 부산 평생교육의 미래에 대한 디자인씽킹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갖는다. 부대행사로 북 콘서트 '강원국의 글쓰기', 부모와 함께 하는 세대융합 미래교육 '나만의 글라이더 만들기, VR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사하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는 11월 16일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열린다. 평생학습의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고 성과를 소개한다. 사하구가 해마다 마련하는 이 행사는 사하구 평생교육기관과 학습동아리가 1년간 활동한 결과를 주민들과 함께 즐기고 나눈다.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전파한다. 또 설문조사를 통한 평생학습 수요 파악과 평생학습 기관끼리의 벤치마킹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회가 된다.

다대포 해변공원 실개천광장에서 펼쳐지는 성과공유회에는 평생학습관을 비롯한 평생학습기관과 우수 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사업을 홍보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아름다운 손' 등 6개 동아리가 작품 전시를 한다. 또, 푸른광장에서는 '늘봄풍물단'외 8개의 동아리가 공연을 선보인다. 부산에서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각종 공연과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 행사로 평생학습의 알찬 성과가 나눠질 것이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바다 미술제 제대로 보기 특강

다대포 특성 살린 동네방네학습관

사하구에는 25개 동네방네 학습관이 있다. 구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한 학습 공간이다. 올해 동네방네 학습관에서는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변공원 관리센터의 '바다미술제 제대로 보기'는 다대포 해변의 특성을 살려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눈에 띈다.

'2019 바다미술제'가 열리는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바다 미술제 제대로 보기'라는 특강이 열렸다. 각 작품에 대한 맞춤형 강의가 해변공원 관리센터에서 다대주민편익시설까지 이어지는 해변의 작품을 따라 두 시간 동안 펼쳐졌다. 김상희(50세 · 다대동) 씨는 "바다 미술제가 열릴 때마다 구경하러 왔지만 항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갔다.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작가의 의도를 알아가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사하구 평생교육과 최영조 주무관은 "동네방네 학습관인 해변공원 관리센터와 다대주민편익시설은 바다미술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다."라고 동네방네 학습관의 편리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구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곳이 동네방네 학습관이다.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바다 미술제 제대로 보기'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동네방네 학습관의 원래 취지와 딱 맞아 떨어진다. 2015년부터 다대포에서 '바다 미술제'가 격년으로 열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설이 부족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었다. 동네방네 학습관이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대포는 바다를 소재로 다양한 주제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카약, 서핑보드, 카이트 보드, 수영 등 다양한 활동도 가능한 곳이다. 지역 학습관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평생학습관이 내 손 안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

사하구민이 평생학습 정보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평생학습 정보를 알려면 직접 관계 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어플, 밴드 등에 회원가입을 해야 가능했다. 이를 개선하여 구민이 실시간으로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사하구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개설한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밴드, 페이스북과는 달리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친구추가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개의 다양한 이미지와 내용을 보다 손쉽게 실시간 받을 수 있고 정보에 대한 호기심과 가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사하구는 올해 11월부터 평생학습 정보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8

김미영 평생학습 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카톡친구 맺고 바로 학습 소식 받자!

카카오톡 친구추가 방법 1

1.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검색) 누르기
2. "사하구평생학습관" 검색 후 친구추가

카카오톡 친구추가 방법 2

1. 친구추가 QR코드 스캔
2. "사하구평생학습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기 획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을 내 서재처럼 이용하자

사하구에는 1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올 한 해 동안 17개의 작은도서관을 가까운 지역끼리 묶어 6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번 호는 당리와 하단 지역의 작은도서관에 대해 돌아본다.

당리에 있는 당리 작은도서관은 10번째로 문을 연 작은도서관으로 낙동초등학교 뒤편 주택가에 있다. 이정표와 작은도서관 안내표지판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게시판에 도서관 행사 관련 안내문이 있고, 여러 신문사의 신문들도 비치되어 있다. 소장도서는 만 권정도이며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 2층에는 일반열람실과 강의실이 있다.

하반기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와 유아를 위한 강좌가 있다. 30 · 40대 어머니가 도서 대출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과 시험기간에는 중고교생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인문고전독서동아리, 독서여행동아리, 독서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다. 지금도 독서동아리를 모집 중에 있으며 지원도 한다.

하단1동에는 하단꿈길 작은도서관이 있다. 16번째의 작은도서관으로 동매산 오르는 비탈길에 있다. 1층에는 장난감도서관, 2층은 어린이 열람실, 3층은 일반 열람실과 강의실이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면 아늑한 휴식공간도 있다. 소장도서는 칠천 권이며 문학도서가 책장의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층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찾은 어머니들이 작은도서관 열람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장난감도서관은 소액의 연회비를 내고 등록하면 언제든지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하단꿈길 작은도서관의 하반기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유아를 위한 강좌가 있다. 그리고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개관과 함께 시작한 그림책 독서동아리가 있다.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는 노을나루길 작은도서관이 있다. 현재 건물 전체에 내진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10월 23일까지 휴관한다. 노을나루길 작은도서관의 소장도서는 이만 이천 권으로 다른 도서관에 비해 많은 편이다. 2층에 어린이 열람실, 일반열람실이 있다. 나눔독서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고, 11월 9일에는 작가의 작품이나 자신의 작품으로 낭독회가 열릴 예정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아도 그것을 널리 이용하지 않으면 전시용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동네의 작은도서관을 내 집 서재처럼 드나드는 것은 어떨까.

문의 : 당리 작은도서관 201-5930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203-7798
노을나루길 작은도서관 220-5207

천종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tagore0308@hanmail.net

11 당리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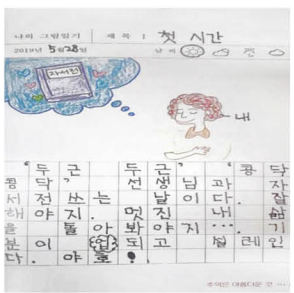
12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13 노을나루길 작은도서관

희희낙락 할매들의 인생이야기

할머니와 청년이 함께 만든 14권의 자서전

한번쯤은 자신의 삶을 글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특히 비문해자라면 더욱 간절할 수도 있다. 지난 9월 27일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는 비문해 학습자 할머니의 자서전 발간 기념회가 열렸다. 할머니들이 쓴 자서전 14권이 '희희낙락 할매들의 인생이야기'란 제목으로 전시되었다.



자서전 발간 기념회가 열린 날은 구청장과 '청년불패'의 청년, '쓰담학교'의 할머니학생 그리고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으로 평생학습관은 축제의 분위기였다. 전시 공간에는 할머니의 자필로 인쇄한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책에는 할머니의 인생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할머니의 시간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었다.

할머니들의 자서전은 문해 교육을 받은 할머니와 '청년불패' 모임에 소속된 청년들이 함께 완성했다. 청년불패는 청년이 지역에 봉사와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비문해 할머니의 자서전 쓰는 것을 도왔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청년이 받아쓰고 그 내용을 다시 할머니와 함께 다듬었다. 완성된 글은 할머니가 다시 자필로 썼다. 그 결과물을 인쇄해 한 권의 자서전으로 완성했다. 자서전에는 할머니의 50년 전 결혼사진, 가족사진, 기행문, 독후감, 편지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이 담겨 있었다.

관람객들은 자서전을 꼼꼼히 읽어보며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서전을 쓴 정말순(79세 · 김해) 할머니는 "눈에 혈관이 터져서 아픈데도, 아들이 허리가 아파 입원을 했어도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했어."라고 말했다. 학교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고, 이름도 쓸 줄 몰랐는데 자서전을 내고 난 뒤에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며 기뻐했다. 정말순 할머니와 짝이 되었던 청년불패의 박예순(23세·학장동) 씨는 "할머니와 함께 자서전을 쓰면서 그 시대의 어려운 형편을 직접 듣게 되어서 좋고, 또 어려운 경제를 성장시켜 주신 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감사해 했다. 박예순 씨는 할머니의 딸로 생각한다며 추석에 할머니 댁도 방문했다고 한다.

이번 자서전 발간은 2016년부터 시작한 성인문해 쓰담학교와 2019년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함께 한 행사로 비문해학습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김미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할매들의 인생을 어루만지다

연극 '차렷, 경례! 아이 캔 두' 선보여

사하구에서 한글 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연극으로 재조명되었다. 지난 10월 7일 · 8일 사하구의 문해교육기관에서 한글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연극의 소재가 되어 '차렷, 경례! 아이 캔 두'라는 제목으로 막이 올랐다.

교육극단 '고춧가루부대'의 기획으로 청년배우들이 어르신 4명의 인생을 연기했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의 성인문해기관 '쓰담학교'와 그 외 문해학습기관의 수강생과 가족, 주민 300여명이 연극 관람을 했다. 네 개의 서로 다른 짧은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옴니버스연극으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아이고, 쯧쯧쯧, 우짜꼬' 배우들의 대사가 나올 때마다 박수와 탄성이 나왔다. 여기저기 눈물을 훌쩍이는 수강생도 있었다. 다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5년째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한등자(77세·다대동) 씨는 "연극을 처음 보는데 내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이제 연극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마음대로 편지도 써보고 책도 한 권 다 읽어보고 싶다. 연극을 자주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하였다.

청춘불패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는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문해 수강생에게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연극의 소재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아울러 연극으로 세대 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들에게 이번 연극은 그들의 힘들었던 시절을 어루만져 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최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얼쑤 좋다’ 우리가락과 함께한 즐거운 인생

소리너름 정영고 씨를 만나다

서양음악과 모던 음악이 대세인 이 시대에 우리가락에 푹 빠져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한 분이 있다. 동아리 ‘소리너름’ 회장 정영고(63세·당리동) 씨다. 사하구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를 아는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를 아우르는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남 사천이 고향인 그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농악을 보며 자랐다. 중학생 시절에 장터에서 열리는 창극단의 장화홍련전에 깊이 빠져 장날만 기다리기도 했다. 가슴에 적셔든 운율의 묘한 느낌은 성인이 되고 강력계 형사라는 직업에 밀려 거의 잊고 살았다.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다 농악소리를 듣고 깜빡 잊었던 그 감흥이 되살아났다. 우리악기를 배우고 싶었으나 마땅히 배울만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부인과 함께 을숙도 문화원 사물놀이 반을 알게 되었다. 부부가 북 치고 장구 치며 한길로 가게 된 시작이었다.

정영고 씨는 장구, 북, 꽹과리에 민요, 판소리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신명나게 소리너름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소리 우리악기가 좋아서 좇아가다 보니 어느새 12명이 함께하는 국악팀을 꾸리게 되었다. 사비를 털어 마련한 연습실을 일주일 내내 개방하여 자신도 연습에 몰두할 뿐 아니라 회원들도 연습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금요일 오후에는 남도민요 강사를 초빙하여 회원 모두가 일대일로 소리를 배운다. 정영고 씨는 “우리가락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조율하여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 20년 가까이 음악을 함께 해온 회원부터 새로 들어온 회원까지를 아우르고 화합하며 가족같이 지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회원들과 함께 매달 정기적으로 효 요양병원을 찾는다. 그는 공연을 통해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도 감동이지만 무엇보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회원들을 칭찬한다. 아쉽다면 부르는 곳은 많으나 회원들이 직장인이라 다 소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복장, 분장, 연주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정영고 씨가 이끄는 소리너름은 작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다대포 공연에서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 여름에는 연습실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창극 심청전 중 어사 상봉막을 올려 큰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정영고 씨는 특강을 통해 우리악기 우리소리를 알리기에도 열심이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연습실을 동네방네 학습관으로 등록하여 구민들을 위한 학습장으로 제공하여 ‘회화나무 빨래터 이야기’, ‘모듬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하구 평생학습축제와 지역축제에서 소리너름의 풍물과 판소리가 흥을 돋우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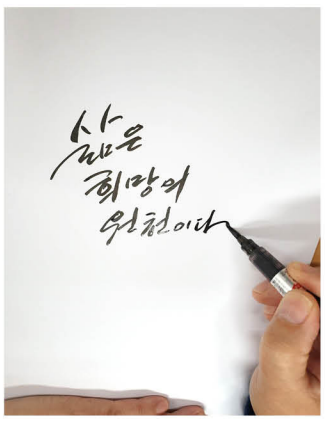
11월에 있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서 정영고 씨가 이끄는 소리너름이 보여줄 공연에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아름다워 돋보이는 ‘캘리그라피’

2급 자격과정도 인기리 진행

올해 상반기 특강으로 열렸던 캘리그라피 수업이 큰 호응을 얻어 하반기에는 한 반이 더 열렸다. 이번 수업은 캘리그라피 2급 자격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업은 9월 5일부터 11월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한다. 수강생은 현재 오전20명, 오후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특강을 수강한 수강생들은 동아리까지 결성하여 역량강화에 도움을 받고 있다.



캘리그라피 강사 김민진(38세)씨는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글씨를 쓸 수 있어 좋다. 하루 3시간 8주 과정만 수료하면 글씨 쓰기가 어려웠던 사람도 쉽게 쓸 수 있다. 캘리그라피는 정해진 사각 틀 안에서 쓰는 서예와 달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한다. 글씨를 쓰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아날로그시대의 감성도 살리며 힐링도 되어 매우 좋다고도 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2급 자격과정을 수료하면 창업이나 방과후 수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업시간에는 수강생들이 글자 한 자 한 자를 쓴다고 여념이 없었다. 수강생 장미자(71세)씨는 캘리그라피는 “재미는 있는데 생각처럼 글이 예쁘게 안 써진다. 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예쁘게 글씨를 써서 학교선생님께 보내고 싶어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수강생 노갑용(60세·당리동)씨는 “올해 6월 정년퇴직을 하고 뭘 배워볼까 생각하다가 캘리그라피와 조각 목공예를 배운다. 다른 것과 달리 목공예와 같이 배우니 꾸미기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 밖에 나가서 모든 글자를 캘리그라피와 접목시켜 전각도 해 보고 싶은 생각에 꿈이 부푼다.”고 말했다.

캘리그라피는 사설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사하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다. 강의료는 무료이며 저렴한 재료비만 내면 된다. 마음만 먹으면 자격과정도 수료해 다양한 활동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하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는 평생학습

을숙도의 자랑 사하문화원

낙동강, 갈대,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하면 떠오르는 곳은 당연 을숙도이다. 자연이 아름다운 을숙도에는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을숙도 문화회관과 함께 사하문화원이 있다. 사하문화원은 인문학 강좌는 물론 전통 · 예술강좌를 많이 다루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평생학습 기관이다.

지역문화를 아끼고 이어나가는 모습은 약 30개의 개설된 강좌로도 알 수 있다. 전통·예술 강좌가 특히 많다. 전통·예술 강좌에는 민요, 장구, 판소리창극, 사물놀이, 퓨전난타 등이 있는데 전통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다. 통기타, 아코디언, 대금, 플룻 등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악기 수업도 특색이 있다. 사주명리학, 동양고전, 스마트폰 활용 등 인문학 강좌도 있다. 특히 라인댄스, 수채화, 한국무용, 모듬북, 퓨전난타, 통기타 수업은 인기가 많아 빨리 마감이 된다. 음악에 맞춰 여러 명이 줄을 맞추어 방향을 바꾸며 표현하는 라인댄스는 가장 인기있는 강좌이다.

일년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고 분기별로 강의가 시작된다. 접수는 1월, 4월, 7월, 10월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수업은 을숙도 문화회관의 전시동에 있는 강의실과 회의실, 다목적 홀 등에서 이루어진다. 평일 주간 강좌와 야간 강좌가 있어서 직장인도 시간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하문화원이 을숙도에 있다 보니 교통이 다소 불편하다.

사하문화원은 을숙도 일대에서 글짓기, 풍경그리기, 스마트폰 사진 공모 등 사하예술제와 함께 하는 ‘문화인의 날 한마당 잔치’도 연다. 사하문화원의 수강생은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발표회를 열고 지역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찾아가 공연도 한다. 그야말로 사하구의 문화예술 축제를 담당하는 평생학습기관이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강좌를 사하문화원에서 체험해보길 권한다.

문의 : 사하문화원 203-2586
http://www.sahacc.kr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동아리톡톡

사랑의 가위 손 '헤어 시저스'

헤어미용사 국가자격증반 모임

사하구에는 머리를 커트하는 동아리 헤어 시저스가 있다. 지난해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헤어미용사 국가자격증반을 수강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이다. 현재 12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용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미용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해 열린 국가미용사 자격증 반을 수료하고 필기시험에 전원 합격을 하였다. 그러나 실기는 쉽지가 않았다. 강좌가 종강된 후에도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매일 모이다시피 하여 연습을 하였다.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보면서 기술을 익히는 사람도 있었다. 그 결과 동아리회원 11명이 헤어미용사 국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헤어디자이너가 되었다. 지금의 헤어 시저스 동아리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미용기술은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머리 손질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전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사람마다 두상 모양도 다르고 머리숱도 다르기 때문에 경력자들도 긴장하는 커트는 초급 헤어디자이너를 더욱더 긴장하게 했다. 긴장을 푸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었다. 헤어 시저스는 회원이 운영하는 카페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먼저 터득한 기술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진로와, 드러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할 곳을 의논한다.

회원 곽은진(39세·다대동) 씨는 헤어미용사 국가자격증반 수료 후 어렸을 때 꿈이었던 미용실 창업을 실현하기 위해 국비지원 창업 반에서도 수업을 받아서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는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유망주이다.

헤어 시저스 회원들은 지금까지 각자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으며 단체로도 재활요양병원과 노인정에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원영(34세 · 토성동) 회장은 머리를 자를 때 실수하지 않도록 어르신과 대화를 하며 원하는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쓴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손길로 어르신의 머리가 깔끔해지고 젊어 보인다고 좋아할 때 저도 기쁘고 뿌듯했어요."라고 말했다. 또 헤어 시저스가 어르신 봉사를 더욱 넓혀가고, 심화과정이 생겨서 기술을 더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필분 평생학습 구민기자
shjpbun@naver.com

퇴근 후 동료와 함께 즐기며 소통해요

장림여중 교직원들의 줌바댄스 배달강좌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오후 조용한 시간 장림여자중학교에 느닷없는 음악소리가 퍼져 나온다. 3층 무용실에서 줌바댄스가 한창이다.

줌바댄스 수업은 지난달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40분 10회에 걸쳐 배달강좌로 열린다. 장림여자중학교 한 교사가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배달강좌 안내문을 보고 신청을 해서 이루어졌다. 수강생은 교사, 행정실 직원, 영양사, 상담교사 등 교직원 12명이다. 수강생들은 학교 안에 있었던 동아리를 통해 함께 운동을 해 본 경험이 있어 배달강좌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 또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교에서 배달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어 출발이 좋았다.

줌바댄스는 에어로빅에 라틴댄스를 섞은 춤이다. 쉽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동작이 많다. 근력운동을 넣은 안무, 살사의 남미댄스 스텝을 섞어 재미와 운동효과를 극대화하여 최근에는 다이어트 운동으로도 인기가 많다.

수업은 신나는 노래에 맞춰 몸 풀기로 시작되었다. 빠른 박자 흥겨운 리듬으로 손, 허리, 다리를 흔들고 펴고 뛰는 전신운동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음악과 느린 음악이 반복됨에 따라 수강생들도 빠르고 느리게 움직였다. 그들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즐겁게 웃으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오른발 왼발 슬라이딩", "갈까 말까 슬라이딩"강사의 구령에 맞춰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익히는 모습도 여느 학생 못지않게 진지했다.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된 수업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함께 모여 하는 동작에 부끄러워하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최기동 교사는 줌바댄스를 통해 체력을 단련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다고 하며 "퇴근 후 바로 운동을 할 수 있어 이동 시간도 줄이고 교직원 사이의 소통도 원만해져서 마음도 편해지는 거 같다."라고 즐거워했다.

직장인이 일을 마치고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장림여자중학교처럼 직장 내에 경비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배달강좌를 열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보면 어떨까. 배달강좌는 7명 이상의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에 사하구 내 장소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사하구청 평생교육과 220-4804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매너는 곧 인격이다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혹시 이 회사에서 가장 매너가 좋은 남성은 누구인가요?"

"이사님", "회장님"....

"이사님은 어떤 부분에서 매너가 좋은가요?"

"친절함이 준비된 모습이 좋아요"

강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원들의 목소리에 망설임과 멋쩍음이 묻어난다. 아침 7시 20분. 평소 출근에 비하면 이른 시간이지만 강의실을 가득 채운 60여명의 수강생들은 진지한 얼굴로 강의에 빠져들었다.

선박부품 생산업체인 무지개공단의 선보공업은 사하구의 "기업, 학습으로 꽃피우다" 사업 중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신청했다.

김유리 강사는 "아 기분 좋다"를 선창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하며, 매너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행동이나 말이라고 했다. 매너는 곧 인격이며, 나만의 매너가 회사의 이미지브랜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는 외형적인 친절이며 배려는 진심으로 행하는 관심과 애정인데 두 가지 모두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수강한 사원들은 "매너가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교육이어서 좋았다. 계속 이러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보공업은 상반기에 한 번 강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세 번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의 자체 교육 뿐 아니라 사하구의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의 소양을 키우고 자긍심을 높이며, 근로자는 꼭 필요하고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

문의 : 사하구청 평생교육과 220-4805

박강균 평생학습 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